

## 성별에 따라 성격차원과 사랑유형이 성적 부정의 질투에 미치는 영향\*

함진선      이장한†

중앙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질투의 진화심리학적 관점과 심리·사회적 관점에 근거하여 연애관계에서 나타나는 질투의 성차를 검증하고, 성별에 따라 질투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차원 및 사랑유형의 효과와 질투의 성차를 중재하는데 기여하는 심리적 변인을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대학생 189명을 대상으로 가상의 질투시나리오를 이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질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진화심리학적 관점에 근거한 질투의 성차가 반복 검증되어 남성이 여성보다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격차원과 사랑유형이 성적 부정의 질투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남성의 경우 외향성-내향성 성격과 우애적 사랑유형이 성적 부정의 질투에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여성의 경우 소유적 사랑유형이 질투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질투의 성차를 조절하는데 기여하는 변인으로써 외향성-내향성 성격차원의 중재효과는 남성의 경우만 지지되어, 외향적 성격특성을 지닌 남성들이 내향적인 남성들보다 파트너의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격차원과 사랑유형이라는 개인차 변인이 성적 부정의 질투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것을 시사해 준다.

주요어: 성적 부정의 질투, 성격, 사랑유형, 외향성-내향성

질투(jealousy)는 가치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나 관계의 질이 제 3자로 인해 손상당할지 모르는 위협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으로서(Parker & Barrett, 1997), 관계의 위협에서 오는 불안과 이런 위협을 발생시킨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정이 핵심을 이룬다. 뿐만 아니라, 소중한 관계의 위협에 대한 다양한 인지적(열등적 사고, 상대방이 떠날 것이라는 믿음), 행동적 반응(울음, 비난, 확인

되지 않은 사실유포, 폭력)까지도 수반한다(de Silva, 1997). 이러한 질투에는 대인관계를 점검하고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순기능(Power & Dalgleish, 1997)이 있는 반면, 질투가 가지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특성으로 인해 대인관계 부적응과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질투는 증오, 자존감 상실, 우울, 관계 종결, 가정폭력 그리고 살인 등의 중요한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09-0084146)

† 교신저자: 이장한,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E-mail: clipsy@cau.ac.kr

원인으로 지목받아 왔다(Kingham & Gordon, 2004; Pines, 1992). 질투는 많은 사회에서 금기시되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솔직히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처하거나 사회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고 부적응과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질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에 기초한 효과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질투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이고 복잡한 인간의 반응 특성으로 남녀 모두에게서 질투 경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질투를 유발하는 상황적 특성에 있어 성차가 존재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남성은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성적인 접촉을 하는 상황(성적 외도)에 대해서 질투심을 보이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여성에게 시간과 돈, 마음을 헌신적으로 바치는 상황(정서적 외도)에 대하여 더 강한 질투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투를 설명하는 이러한 관점은 질투의 진화심리학에 기초한 것으로, 남성과 여성은 각기 다른 적응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선천적이고 특정한 질투 모듈(Jealousy as a Specific Innate Module)을 발달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Buss, 1992; 1995; 2000). 남성의 경우, 아이가 자신의 진짜 자식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이른바 부성 불확실성 (paternity uncertainty)으로 인해 상대 여성의 성적 부정(不貞)이 남성의 자손변식에 결정적인 위협요소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 짹의 성적 부정을 암시하는 신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계한다. 반면, 여성의 경우, 자신이 아이를 직접 출산하였기 때문에 모성에 대한 불확실성(maternity uncertainty)이 없다. 대신 상대 남성이 자신과 자식에게 정서적, 물질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위협할 수 있는 다른 여성과의 정서적 애정관계를 발달시키는 것을 경계한다. 그 결과, 남성들은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더 많이 괴로워하며 성적인 부정에 민감하며, 여성들은 자기 짹이 다른 여성과 정서적 애정관계를 발달시키는 상황에서 더 많이 괴로워하며 정서적 부정에 민감하도록 진화되어 왔다.

진화심리학적 관점에 근거한 남녀의 질투 차이는 미국 (Schutzwohl & Koch, 2004; Shackelford, Buss, & Bennett, 2002), 네덜란드, 독일, 일본, 중국(Buunk, Angeleitner, Oubaid, & Buss, 1996; Harris & Christenfeld, 1996), 한국

(함진선, 이장한, 2006, 2007; 유옥순, 2006; 김교현, 2004) 등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입증되었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가상적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성적 부정 상황과 정서적 부정 상황 중 어느 상황이 자신에게 더 괴로운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남성들은 정서적 부정 상황보다 성적인 부정 상황에 더 질투를 느끼며, 여성들은 반대로 성적인 상황보다 정서적인 부정 상황에서 더 강한 질투를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질투 상황에 있어 이러한 성차는 피부전기활동(electrodermal skin activity), 맥박(pulse rate) 반응에 대한 생리측정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남성은 파트너의 성적 외도 상황의 상상에서, 여성은 파트너의 정서적 외도 상황을 상상할 때 피부전기 활동과 맥박이 더 높게 나타났다(Buss et al., 1992).

그러나 남성이 여성보다 성적부정에 대해 질투를 더 많이 느낀다는 성차는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마다 성차의 크기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학생의 경우, 남성의 60%가 성적 부정 상황에 대해 괴롭다고 평가한 반면, 중국의 남성은 25~30%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으며(Harris, 2003; Buunk et al., 1996), 한국 남성의 경우, 52%가 성적부정 상황에 대해 괴롭다고 응답하였다(김교현, 2004).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질투가 모든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진화심리학적 관점과 달리 질투의 성차를 조절하는데 여러 변인들이 관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질투의 성차를 진화심리학적 관점에 의존하여 문화보편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나아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남녀 간의 질투 차이는 사회화와 학습의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DeSteno, Bartlett, Braverman, & Salovey, 2002). 사회문화적 관점 중 대표적인 것으로 사회역할 이론(social role theory)과 사회지배 이론(social dominance theory)을 들 수 있다. 사회역할 이론에서 볼 때, 사회적 행동에서 보여지는 성차는 남녀의 생물학적 구조에 기인한다기 보다 남녀 간의 노동 역할 분담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내재화되면서 성행동에 있어서도 성차가 생겨날 수 있다고 보았다(Eagly, 1997). 한편, 사회지배 이론에 따르면, 성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에서 나타나는 성차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배의 결

과라고 보았다(Pratto, 1996). 두 이론 모두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한 설명방식을 배제하고 사회적 구성물인 역할과 지배를 통해 질투의 성차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화심리학적 관점과 대견될 수 있다. 이러한 설명과 함께, DeSteno 등(2002)은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질투를 측정하는 강제선택 방식(응답자들은 성적 부정과 정서적 부정 상황을 떠올린 후 어느 상황에서 더 질투를 느끼는지에 대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이 갖는 측정 오류를 배제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한 가지 부정 상황을 선택해야 하는 강제 선택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이중사살의 가설(남성은 여성의 성적인 부정을 통해서 그리고 여성은 남성의 정서적인 부정을 통해서 나머지 다른 하나의 부정을 이중으로 확인하는 것)을 보완하여 질투를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질투의 성차를 조절하는 사회적 경험 및 신념과 관련된 연구로 성적지향성(sexual orientation)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남성 동성애자 집단은 남성 이성애자 집단과 달리 정서적 부정 상황에서 더 많은 질투를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여 여성 이성애자 집단과 유사한 질투 반응을 보였다(Sheets & Wolfe, 2001).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외도경험이 질투에 영향을 미쳐 배우자의 외도 경험이 있었던 남성과 여성이 그렇지 않은 성인 남녀보다 성적 부정에 대해 질투를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Sagarin, Becker, Guadangno, Nicastle, & Millevoi, 2003). 더 나아가 과거 혹은 현재 깊은 신체접촉을 포함한 연애경험이 있는 남성일수록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파트너의 성적 부정에 대해 질투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Murphy, Vallacher, Shackelford, Bjorklund, & Yunger, 2006). 또한, 성 경험에 없는 여성에 비해 성 경험에 있는 여성의 파트너의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재원, 허태균, 한성열, 2004).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질투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으며(황재원, 허태균, 한성열, 2004; Harris, 2000; 2003a; 2003b), 성적지향성을 비롯해 파트너의 외도경험과 연애경험 등 다양한 변인들이 질투의 성차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의 대부분이 사회·문화적 특

성을 중심으로 질투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으며,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기초한 개인차 변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질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으로 애착유형(함진선, 이장한, 2007; Guerrero, 1998; Buunk, 1997), 적대감 및 불안과 신경증적 경향성이 보고되어 왔다(Bringle, 1991; Buunk, 1982; Mead, 1977). 특히, 불안과 신경증적 경향성과 같은 성격특성은 질투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상태(가치 있는 상대방과의 친밀한 관계를 제 삼자에게 빼앗기거나 손상당 할지 모르는 위협에 대한 불안 반응)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지닌다.

성격(personality)은 대인관계를 포함해 개인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안정적 특성(Clark, Watson, & Mineka, 1994)으로 배우자 선택(Buss, 1998; Little, Burt, & Perrett, 2006) 및 관계만족도(Botwin, Buss, & Shackelford, 1997)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차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지닌 성격차원 중 외향성-내향성 및 신경증적 경향성이 친밀한 이성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적응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es, 1996; Wan, Luk, & Lai, 2000). 신경증적 경향성 차원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기분변화가 심하여 쉽게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으며(이유정, 1995), 작은 스트레스에도 지나칠 만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많다(Eysenck & Eysenck, 1975). 이러한 특성의 성격차원은 연애관계에서 질투에 의해 유발되는 불안, 분노, 걱정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개인이 지닌 성격특성뿐 아니라 연애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서, 인지, 생리적 욕구와 특징들을 역동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주는 개념으로서 사랑유형(Wan, Luk, & Lai, 2000) 역시 질투와 관련 있는 심리적 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사랑유형(사랑에 대한 태도)은 연애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관계 만족도, 관계 종결 등)의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작용하며(노유진, 2006; Levy & Davis, 1988; Davies, 1996; Wan, Luk, & Lai, 2000), 각기 다른 사랑유형에서 충족되어지는 심리적·생리적 욕구는 다르므로, 그 중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연애관계에서 보여지는 대표적인 심리·사회적인 개인차 특성이라 할 수 있다(Lee, 1977). 예

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사랑의 유형이 제시되어 왔는데(Lee, 1973; Sternberg, 1986), Lee(1973)는 사랑을 다양한 색깔에 비유하여 열정적 사랑, 유희적 사랑, 우애적 사랑, 소유적 사랑, 실용적 사랑, 헌신적 사랑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질투와 가장 관련이 있는 사랑유형으로는 소유욕과 의존성이 주요한 특정인 소유적 사랑(mania)이 제기되어 왔다. 소유적 사랑은 질투와 소유욕이 강하고, 상대에게 강한 몰두를 보이며 더 많은 애정과 헌신을 요구한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항상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또한, 소유적 사랑은 신경증적 경향성 성격차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es, 1996). 이외에도 첫 눈에 반하는 사랑 혹은 신체적 매력에 강하게 이끌리는 열정적 사랑(eros)과 사랑을 일종의 게임으로 생각하여 한 사람을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깊은 정서적 헌신을 갖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희적 사랑(ludus)이 질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열정적 사랑을 하는 연인들은 신체접촉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고 강한 정서적 감정을 동반하므로 서로가 빨리 자기개방을 하게 된다. 그러나 상대에게 요구하거나 강박적으로 몰두하는 면은 없고, 경쟁자의 존재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므로 열정적 사랑유형은 질투와 관련성이 적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반면, 사랑을 일종의 게임으로 생각하여 정서적 애정 및 헌신이 결여된 쾌락 추구의 사랑을 보여주는 유희적 사랑유형의 경우, 파트너의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이들은 한 사람을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동시에 여러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파트너에게 깊은 정서적 헌신과 애정관계를 발달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파트너의 정서적 부정보다는 성적 부정에 대해 질투를 더 많이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사랑을 많은 시간과 활동을 공유하는 특별한 종류의 우정이라고 여기는 우애적 사랑(storge)을 하는 사람들은 파트너의 성적 부정보다는 정서적 부정에 대해 질투를 더 많이 경험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우애적 사랑이 열정과 유희적 사랑보다는 친구로서 알아가는 과정을 보다 소중히 여기므로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발전해 가는 지속적인 정에 근거한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랑유형 외에도 상대가 자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고려하여 적절한 상대를 찾는 것을 추구하는 실용적 사랑(pragma), 사랑의 상호성을 기대하지 않고 사랑을 의미적이며 베푸는 것으로 여기는 헌신적 사랑(agape)이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개인내적 특성으로 성격차원과 사랑유형이 연애관계에서 나타나는 질투와의 관련성을 확인해봄으로써,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나타난 질투의 성차를 조절하는데 있어 심리·사회적 개인차 변인이 관여하는지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질투에 대한 진화심리학적 보편성을 중재하는 데 있어 기준의 사회·문화적 특성뿐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질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질투의 진화심리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질투의 성차를 검증하고, 둘째, 성별에 따라 성격차원과 사랑유형, 그리고 질투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질투의 성차를 조절하는데 기여하는 심리·사회적 변인을 밝히고자 한다.

## 연구방법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C, K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2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대학생을 선정한 이유는 연애관계에 관여할 확률이 높고 연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연구의 정보가 불필요하고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 189명(남자 82명, 여자 107명)을 자료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평균연령은 각각 22.6세( $SD=2.0$ ), 22.2세( $SD=1.6$ )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연령차는 없었다. 현재 파트너와의 관계는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89명(남성 47.6%, 여성 46.7%), '현재 가볍게 만나

고 있다’, ‘현재 깊은 관계(신체접촉을 포함)를 맺고 있다’, ‘동거’ 등의 응답이 100명(남성 51.2%, 여성 53.3%)을 차지하였다.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중 ‘과거 깊은 관계(신체접촉 포함)를 맺은 적이 있다’가 64명(남성 31.7%, 여성 35.5%), ‘연애 경험이 전혀 없다’가 25명(남성 8.5%, 여성 2.8%)으로 나타나, 과거를 포함해 연애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64명, 연애경험이 없는 사람은 25명으로 밝혀졌다. 성별에 따른 현재 연애유무와 과거 연애경험 간 차이는 없었다.

## 측정 도구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문지

일반적 특성 질문지는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현재 파트너와의 관계, 성적지향성(동성애자, 양성애자, 이성애자)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파트너와의 연애관계를 측정하는 문항은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없다’, ‘결혼 혹은 동거’, ‘깊은 관계(신체접촉을 포함)를 맺고 있다’, ‘가볍게 만나고 있다’의 네 가지 응답범주로 구성되었다.

### 질투 질문지

질투 질문지는 Buss와 그의 동료들(1992)이 개발한 것으로 지시문(시나리오)을 읽고 성적 부정과 정서적 부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응답하는 강제선택 방식(forced-choice question)의 자기보고식 측정 질문지로 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 문항과 유사한 가정상황(성적 부정과 정서적 부정 둘 다에 대해 질투를 느끼는 경우)을 묻는 1문항을 더 추가하여 총 3문항의 질투 질문지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부록 참조). 추가된 문항은 인위적으로 한 가지 부정 상황을 선택해야하는 강제 선택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이중사살의 가설(남성은 여성의 성적인 부정을 통해서 그리고 여성은 남성의 정서적인 부정을 통해 나머지 다른 하나의 부정을 이중으로 확신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DeSteno et al., 2002).

질투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성적 부정 상황에 대한 응답을 ‘1’, 정서적 부정 상황에 대한 응답을 ‘0’으로 하여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 점수(Sexual Jealousy Score)’를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부정에 대한 질투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Buss, Shackelford, Kirkpatrick, Choe, Hang, & Hasegawa, 1999). Buss와 그의 동료들(1992)의 연구에서는 원 2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5$ 였으며, 본 연구에서 질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3 문항의 Cronbach's  $\alpha = .87$ 로 나타났다.

### 아이젠크 성격 검사

우리나라 표집을 대상으로 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성인용)를 사용하였다(이현수, 1991). 이 검사는 정신병적 경향성(psychoticism), 외향성-내향성(extraversion-introversion), 신경증적 경향성(neuroticism) 그리고 허위성(lie)과 같은 네 가지 성격차원을 측정하는 8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예’(1점) 또는 ‘아니오’(0점)로 응답하며 일부 문항은 역 체점되어, 각 차원에 속하는 문항들의 점수를 합산한 후 네 가지 성격차원의 총점을 산출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허위성을 제외한 세 가지 성격차원과 질투와의 관련성을 측정하였다.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 표준화 연구에서는 정신병적 경향성, 외향성-내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차원의 Cronbach's  $\alpha$  값은 각각 .67, .81, .84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79, .85, .86로 나타났다.

아이젠크 성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성격특성을 평가하고자 할 때 검사 결과를 연령 및 성별 집단의 평균치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으며, 연구대상자들의 검사 점수가 연령 및 성별 집단의 평균치보다 높은지 혹은 낮은지가 일차적 진단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절대적일 수는 없다(이현수, 199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 과정에서 성별과 상호작용하여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차원의 중재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검사점수를 연령 및 성별집단의 평균치 비교로 정상성을 확인한 후, 상위 25%(외향성 집단)와 하위 25%(내향성 집단)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 사랑 유형

사랑유형을 평가하기 위해 Lee(1973)의 사랑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Hendrick과 Hendrick(1986)의 사랑태

도 척도(Love Attitudes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6개의 사랑유형을 각각 7문항으로 측정하여 총 4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측정된다. 본 질문지는 현재 사귀고 있는 파트너를 생각하면서 완성하도록 요구되어거나 연애경험은 있지만 현재 이성교제 중이 아닐 경우 최근 연애 파트너를 생각하며 완성하며,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자신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문항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각각의 사랑유형에 해당하는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의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 사랑유형의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사랑유형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예로는 ‘내 애인과 나는 첫 눈에 서로 끌렸다(열정적 사랑)’, ‘나는 연애를 쉽게 하고 빨리 끝내는 편이다(유희적 사랑)’, ‘나는 사랑에 빠지면 다른 일에는 집중하기 어렵다(소유적 사랑)’, ‘나는 애인과 언제나 친구처럼 지내고 싶다(우애적 사랑)’,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좋다(실용적 사랑)’, ‘나는 애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이타적 사랑)’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랑유형 하위요인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열정적 사랑 .67, 유희적 사랑 .61, 소유적 사랑 .74, 우애적 사랑 .82, 실용적 사랑 .74, 현신적 사랑 .84로 나타났다. 유희적 사랑의 신뢰도 계수는 7문항 중 1문항을 제외시킨 후 산출하였는데, 그 이유는 질문 문항(사랑하는 애인이라면 나에 관하여 다소 모르는 것이 있다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 하지는 않을 것이다)이 유희적 사랑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낮은 신뢰도 문항으로 지적된 바 있었기 때문에(조은혜, 1996),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저해하는 한 문항을 제외시키고 유희적 사랑유형을 평가하였다.

## 자료 분석

조사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원도우형 SPSS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성별에 따른 질투와 사랑유형 및 성격의 차이를 확인하고 변인들간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성적부정의 질투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차원과 사랑 유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 집단을 구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과 상호작용하여 성적 부정의 질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진 외향성-내향성 성격차원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검사점수를 연령 및 성별집단의 평균치 비교로 정상성을 확인한 후, 상위 25%(외향성 집단)와 하위 25%(내향성 집단)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외향성 집단에 52명(남성 24명, 여성 28명), 내향성 집단에 40명(남성 11명, 여성 29명)이 분류되었다.

## 결 과

### 성별에 따른 질투, 성격차원 및 사랑유형

표 1에는 성별에 따른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 성격차원 및 사랑 유형의 점수가 제시되어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성적부정에 대한 질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187)=4.08, p< .01$ ). 성별에 따라 성격차원과 사랑 하위 유형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격차원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신경증적 경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t(187)=-2.69, p< .01$ ), 사랑유형이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실용적 사랑을 더 많이 하는 것( $t(187)=-4.04, p< .01$ )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은 여성보다 현신적 사랑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187)=7.14, p< .01$ ).

### 질투, 성격차원 및 사랑유형간의 관계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와 성격차원 및 사랑유형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각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남성의 경우,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는 외향성-내향성 성격 차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r=.33,$

성별에 따라 성격차원과 사랑유형이 성적 부정의 질투에 미치는 영향

표 1. 성별에 따른 질투, 성격차원, 및 사랑유형의 평균(표준편차)

질투	남성(N=82)	여성(N=107)	<i>t</i>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적 부정의 질투	1.20(1.32)	0.51(0.97)	4.08**
성격 차원			
외향성-내향성	11.56(4.30)	10.84(4.37)	
신경증적 경향성	10.62(5.09)	12.84(6.01)	-2.69**
정신병적 경향성	2.35(2.00)	2.08(1.78)	
사랑 유형			
열정적 사랑	21.99(3.96)	21.45(3.97)	
유희적 사랑	13.78(3.50)	13.50(3.23)	
우애적 사랑	16.32(4.66)	17.12(5.19)	
실용적 사랑	18.88(4.43)	21.42(4.17)	-4.04**
소유적 사랑	18.91(4.86)	18.84(4.73)	
현신적 사랑	21.29(4.72)	16.79(3.96)	7.14**

\*\*  $p < .01$ , 성적 부정의 질투 점수(Sexual Jealousy Score):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0은 정서적 부정에 대한 질투를 의미(점수범위: 0~3). 외향성-내향성 성격차원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외향성 차원이 강한 것을 의미.

$p < .01$ ), 우애적 사랑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r = -.21$ ,  $p < .05$ ). 성격차원과 사랑유형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외향성-내향성과 유희적 사랑( $r = .24$ ,  $p < .05$ )의 관계는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우애적 사랑과의 관계( $r = -.25$ ,  $p < .05$ )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여성의 경우,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는 소유적 사랑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r = .26$ ,  $p < .01$ ). 성격차원과 사랑유형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경증적 경향성과 유희적 사랑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 = .31$ ,  $p < .01$ ).

표 2. 성적 부정의 질투, 성격차원 및 사랑유형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1. 질투	2	3	4	5	6	7	8	9
2. 열정적 사랑	.08(.15)							
3. 유희적 사랑	-.12(.08)	-.13(-.09)						
4. 우애적 사랑	-.21*(-.11)	-.10(-.12)	.11(-.03)					
5. 실용적 사랑	.08(.07)	.12(-.05)	.19(.32**)	.05(.04)				
6. 소유적 사랑	-.07(.26**)	.36**(.32**)	.01(.09)	.16(-.10)	.14(.10)			
7. 현신적 사랑	-.06(.08)	.34**(.39**)	-.20(-.25**)	.22*(.14)	.02(-.25**)	.43**(.40**)		
8. 외향성-내향성	.33**(.06)	.22*(.23*)	.24*(-.02)	-.25*(-.12)	.14(.02)	-.02(-.02)	-.14(.07)	
9. 신경증적 경향성	-.11(.17)	-.10(.10)	.20(.31**)	.14(-.10)	.10(.09)	.41**(.51**)	.07(.14)	-.25*(-.18)
10. 정신병적 경향성	-.03(-.10)	.04(-.06)	.17(.03)	-.01(.10)	-.30**(-.12)	.12(-.21*)	.13(-.15)	-.07(-.04)
								.04(-.17)

\*  $p < .05$ , \*\*  $p < .01$  괄호 안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측정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의미.  
외향성-내향성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외향성 차원이 강한 것을 의미.

표 3. 성적 부정의 질투에 대한 성격차원과 사랑유형의 회귀분석(남성)

변인	B	$\beta$	R	$R^2$	F
외향성-내향성	.49	.33**			
우애적 사랑	-.29	-.21*	.43	.19	9.18**

\*  $p < .05$ , \*\*  $p < .01$ , B는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는 표준화 회귀계수

표 4. 성적 부정의 질투에 대한 성격차원과 사랑유형의 회귀분석(여성)

변인	B	$\beta$	R	$R^2$	F
소유적 사랑	.05	.26**	.26	.07	7.32**

\*  $p < .05$ , \*\*  $p < .01$ , B는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는 표준화 회귀계수

외향성-내향성 성격 차원과 열정적 사랑 간의 관계는 남성( $r=.22$ ,  $p < .05$ )과 여성( $r=.23$ ,  $p < .05$ ) 모두에게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신경증적 경향성과 소유적 사랑 간의 관계 역시 남성( $r=.41$ ,  $p < .01$ )과 여성( $r=.51$ ,  $p < .01$ ) 모두에게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병적 경향성 성격차원의 경우, 남성에게서는 실용적 사랑( $r=-.30$ ,  $p < .01$ )과 여성에게서는 소유적 사랑( $r=-.21$ ,  $p < .05$ )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 따른 성격차원 및 사랑유형이 질투에 미치는 영향

상관분석 결과, 질투, 성격차원 및 사랑유형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밝혀져 성별에 따라 성격차원과 사랑유형이 질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의 자료를 구분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성의 경우, 외향성-내향성 성격차원과 우애적 사랑 유형이 성적 부정의 질투를 예측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외향성-내향성과 우애적 사랑이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를 설명하는 정도가 19%이며,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살펴볼 때 외향성-내향성 성격차원이 질투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4에서 여성의 경우, 소유적 사랑만이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를 설명하는 변량이 약 7%로 나타나 남성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남성

들은 외향성-내향성 성격차원과 우애적 사랑이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에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여성들의 경우 소유적 사랑만이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를 경험하는데 작용하여 성별에 따른 상이한 결과가 밝혀졌다.

#### 외향성-내향성 성격차원의 중재효과

질투의 성차를 조절하는데 기여하는 심리적 변인을 검증한 결과, 성별과 상호작용하여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에 영향을 미치는 외향성-내향성의 중재효과가 밝혀졌다. 외향성과-내향성의 성격차원 점수의 상위 25%(외향성 집단, 52명)와 하위 25%(내향성 집단, 40명) 값을 기준으로 각 두 집단으로 나누어 회귀선을 구하여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를 살펴보았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향성-내향성의 상·하 수준이 성별과 상호작용하여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 $F(1,88)=3.89$ ,  $p < .05$ )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남성의 경우, 외향성 성격의 사람들이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 중재효과가 지지되었다( $t(33)=2.70$ ,  $p < .05$ ). 그러나 여성의 경우, 외향성-내향성 수준에 따라 성적 부정의 질투에 있어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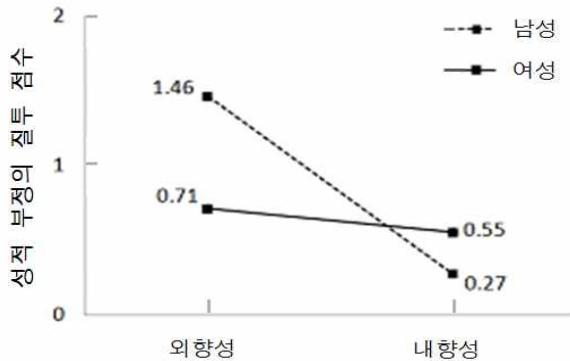


그림 1. 성적 부정의 질투에 미치는 성별과 성격차원의 상호작용

##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상의 시나리오 상황에 대한 응답을 통해, 질투의 진화심리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질투의 성차를 검증하고, 더 나아가 성별에 따라 질투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차원과 사랑유형의 효과와 질투의 성차를 중재하는데 기여하는 심리·사회적 변인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진화심리학적 관점에 근거한 질투의 성차가 반복 검증되었으나, 성별에 따라 성격차원과 사랑유형이 질투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질투의 성차를 조절하는데 기여하는 변인으로써 외향성-내향성 성격차원이 성별과 상호작용하여 성적 부정의 질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진화심리학적 관점만으로 설명이 불충분하였던 남녀의 질투 양상이 개인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논의해보자 한다.

먼저, 질투의 진화심리학적 관점이 반복 검증됨으로써 남성들에게는 파트너의 성적 부정과 관련된 단서를 민감하게 경계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선천적이고 특정한 질투 기제가 존재하며, 이에 반해 여성들에게는 파트너의 정서적인 부정과 관련된 단서를 민감하게 경계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제가 존재한다는 질투의 진화심리학 이론이 지지되었다. 연구결과, 남성( $M=1.20$ )이 여성( $M=.51$ )보다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파트너의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진화심리학적 관점으로 설명이 불충분하였던 부분(질투의 성차가 문화권마다 상이한 점)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제기된 질투의 성차를 중재하는 변인들에 대한 탐색을 기반으로 하여 심리·사회적 개인차 변인과 질투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와 성격차원 및 사랑유형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각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 성격차원과 사랑유형이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는 외향성-내향성 성격 차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우애적 사랑과는 통계적으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성격차원과 사랑유형의 하위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외향성-내향성과 유희적 사랑의 관계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우애적 사랑과의 관계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소유적 사랑이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사랑유형과 성격차원 하위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경증적 경향성과 유희적 사랑의 관계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외향성-내향성 성격 차원과 열정적 사랑 간의 관계 그리고 신경증적 경향성과 소유적 사랑 간의 관계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랑을 일종의 게임으로 생각하여

한 사람을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깊은 정서적 헌신을 갖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희적 사랑이 성적 부정의 질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 연구자들은 가정하였으나, 유희적 사랑유형과 질투와의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희적 사랑이 갖는 또 다른 특성인 “한 대상에게만 몰입하지 않으며 여러 대상을 동시에 사랑하기도 하고, 쉽게 애인을 바꿀 수 있으며 상대에 대해서도 매우 허용적인 태도”로 인해 친밀한 관계나 가치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부정뿐 아니라 정서적 부정에 대한 질투를 경험할 가능성이 적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 성격차원 중 신경증적 경향성과 정신병적 경향성이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와의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가지 성격차원이 일반적인 질투보다는 병적 질투와 더욱 밀접하게 연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병적 질투(morbid jealousy)는 일반적인 질투 양상과 구별되는 것으로써 파트너의 부정에 대한 비합리적 사고 및 지나친 과민 반응을 수반하고 있다(Kingham & Gordon, 2004). 특히, 성인 남녀의 경우 파트너의 성적 부정에 대해 병적 질투를 더욱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Easton, Schipper, & Shackelford, 2007). Eysenck 성격차원 중 신경증 및 정신병적 경향성이 병적 질투가 갖는 주요 특성과 유사하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본 연구에서 측정한 일반적인 질투 양상과는 관련이 적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 성격차원과 사랑유형이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남성의 경우 외향성-내향성 성격차원과 우애적 사랑이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에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여성의 경우 소유적 사랑만이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를 경험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임이 밝혀졌다. 소유욕과 의존성이 강한 것이 특징인 소유적 사랑유형은 상대에게 더 많은 애정과 헌신을 요구하며 사랑과 애정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려는 강한 경향성과 관련이 있다. 여성의 경우, 소유적 사랑의 경향성이 강할수록 연애 관계에 있는 파트너의 성적부정에 대한 질투를 경험하게 만드는 심리적 변인의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 $\beta = .26$ ). 반면, 남성의 경우, 사랑을 많은 시간과 활동을 공유하는 특별한 종류의 우정이라고 여기는 우애적 사랑의 경향성이 강할수록 파트너의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beta = -.21$ ). 이러한 결과는 가정 폭력 및 살인사건의 대부분이 배우자에 대한 ‘성적 질투심’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Daly & Wilson, 1988; Daly, Wilson, & Weghorst, 1982)과 관련지어 볼 때,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로 인해 야기되는 파괴적이고 역기능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성격차원과 연애관계에 작용하는 변화 가능한 태도로써 사랑유형에 대한 고려가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다음으로, 질투의 성차를 조절하는데 기여하는 심리적 변인을 검증한 결과, 성별과 상호작용하여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에 영향을 미치는 외향성-내향성의 중재효과가 밝혀져, 남성의 외향성-내향성 성격수준에 따라 성적 부정의 질투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외향성 성격의 사람들이 내향적인 사람들 보다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외향성-내향성 성격에 따른 질투 정도에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질투의 성차를 조절할 것으로 가정된 외향성-내향성 성격차원은 남성의 경우에만 지지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Wade와 Walsh(2008)에 의해 최근 이루어진 성격의 5요인 모델에 근거한 성격 특성과 질투 간에 관련성 연구결과와 비교할만하다. Wade와 Walsh(2008)는 성격차원이 질투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관계(relationship)와 관련된 심리적 변인이 성격을 매개하는 방식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질투를 더 잘 예측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격의 5요인 모델에서 설명하는 성격차원들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는 배우자 선택 및 연애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Pervin & John, 2001). 따라서, 사회·문화적 관점에 근거하여 질투의 성차를 중재하는 개인차 변인을 확인하기 위한 시도로써 수행된 본 연구의 성격차원과는 그 특성이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Eysenck의 외향성 성격차원이 연애관계뿐 아니라 배우자 선택에서 성 행동의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경험적 연구(Schmitt & Buss, 2001)에 근거해 볼 때, 외향성 성격차원이 파트너의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에 기여하는 안정적인 개인차 변인임을 시사해 준다.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성격 유형론에 근

거한 외향성은 정신에너지의 방향이 외부세계에 향하여 있어, 연애 파트너의 내적 단서(정서적 부정)보다는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외적 단서(성적 부정)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결과적으로 성적 부정의 질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남성의 외향성 성격특성이 진화심리학에 근거한 질투의 성차를 조절하여, 같은 남성일지라도 외향성 성격을 지닌 사람 일수록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를 강하게 느끼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질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으로써 안정적인 개인내적인 특성으로 성격 차원과 관계와 상황에 따른 맥락이 반영된 변화 가능한 태도로 사랑유형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성격특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범주형 접근(categorical approach)과 차원적 접근(dimensional approach)이 사용되고 있다. 범주형 접근은 진단 분류에 주로 중점을 두는 방법이고, 차원적 접근은 진단분류나 성격의 특질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의 차원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차원적 모델이 범주형 모델에 비해 연구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Widiger, 1992)에 기초하여 외향성-내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성격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랑은 개인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 간에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질투와의 관련성을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애관계에 있는 남녀 커플을 대상으로 상호간의 사랑유형에 대한 부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Lee(1988)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개 한 가지 유형의 사랑을 선호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한 가지 이상의 유형이 나타날 수 있어 한 가지의 사랑유형에 제한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애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 사랑유형의 일치 정도가 질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질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는 성격과 사랑유형을 중심으로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연애질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했던 성격차원과 사랑유형의 효과가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도 불구하고 설명력이 낮은 이유는 또 다른 심리·사회적 변인이 남녀의 질투양상에 관여할 가능성 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자아존중감 수준(Jaremko

& Lindsey, 1879; Bringle, 1981)과 소유 욕구의 또 다른 특성으로 파트너와의 성적 독점성(Buunk, 1982)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심리·사회적 개인차 변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질투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첫째, 연구방법론적으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질투를 측정하였으나, 질투의 다양한 (정서, 인지, 행동적) 반응특성을 타당하고 신뢰로운 방식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질투 측정 도구의 개발과 사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방법과 관련하여, 최근 질투의 정보처리 과정을 자동적이고 암묵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타당하게 측정하려는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유옥순, 2006). 둘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 연애에 많이 관여할 것이며 가정하여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질투에 관한 보다 폭넓고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대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연애관계에 있는 남녀 쌍을 대상으로 후속연구가 진행될 때 보다 정확한 사랑유형과 성격차원 그리고 질투의 심리적 기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성격차원과 사랑유형이 성적 부정의 질투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데 있어, 연령과 교제기간에 따라 변화하는 사랑유형의 영향(노유진, 2006)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간의 상호관련성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김교현 (2004). 남자의 질투와 여자의 질투: 연인관계에서의 질투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 771-792.  
노유진 (2006). 성인애착유형이 미혼남녀의 사랑유형과 이성교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경아 (2003). 여대생의 성격과 사랑유형간의 관계: 경계선적 성격특질과 회피성 성격특질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옥순 (2006). 애정적 질투의 남녀차: 암묵적 연합검사

- 를 이용한 질투의 선천적 모듈(JSIM) 가설 검증.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정 (1995). 성격이 기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외-내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을 중심으로. *성격 및 개인차 연구*, 4, 55-72.
- 이현수 (1991). 아이펭크 성격검사-성인용. 서울: 학지사.
- 조은혜 (1996). 성격과 사랑유형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함진선, 이장한 (2006). 질투의 성차와 문화차: 한국과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 143-155.
- 함진선, 이장한 (2007). 성별과 애착유형이 연애 질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 101-114.
- 황재원, 허태균, 한성열 (2004). 질투심의 성차: 진화론적 가설에 대한 사회인지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 25-39.
- Botwin, M. D., Buss, D. M., & Shackelford, T. K. (1997). Personality and mate preferences: Five factors in mate sele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65, 107-136.
- Bringle, R. G. (1981). Conceptualizing jealousy as a disposition. *Alternative Lifestyles*, 4, 274-290.
- Bringle, R. G. (1991). Psychosocial aspects of jealousy: A transactional model. In P. Salovey(Ed.), *The psychology of jealousy and envy* (pp. 103-131). New York: Guilford.
- Buss, D. M. (1998). *Evolutionary psychology: The new science of the mind*. Boston: Allyn & Bacon.
- Buss, D. M., Larsen, R., Westen, D., & Semmelroth, J. (1992). Sex differences in jealousy: Evolution, physiology, and psychology. *Psychological Science*, 3, 251-255.
- Buss, D. M., Shackelford, T. K., Kirkpatrick, L. A., Choe, J. C., Hang, K. L., & Hasegawa, M. (1999). Jealousy and the nature of beliefs about infidelity: Tests of competing hypotheses about sex differences in the United States, Korea, and Japan. *Personal Relationships*, 6, 125-150.
- Buunk, B. P. (1982). Anticipated in sexual jealousy: Its relationship to self-esteem, dependency and reciproc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8, 310-316.
- Buunk, B. P. (1997). Personality, birth order, and attachment styles as related to various types of jealous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 997-1006.
- Buunk, B. P., Angeleitner, A., Oubaid, V., & Buss, D. M. (1996). Sex differences in evolutionary and culture perspective: Tests from Netherlands,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Psychological Science*, 7, 359-363.
- Clark, L. A., Watson, D., & Mineka, S. (1994). Temperament, personality, and the mood and anxiety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103-116.
- Daly, M., & Wilson, M. (1988). *Homicide*. New York: Aldine.
- Daly, M., Wilson, M., & Weghorst, S. J. (1982). Male sexual jealousy. *Etiology and Sociobiology*, 33, 11-27.
- Davies, M. F. (1996). EPQ correlates of love sty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 257-259.
- de Silva, P. (1997). Jealousy in couple relationship: Nature, assessment, and therapy.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35, 973-985.
- DeSteno, D., Bartlett, M., Braverman, J., & Salovey, P. (2002). Sex differences in jealousy: Evolutionary mechanism or artifact of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1103-1116.
- Eagly, A. H. (199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Comparing social role theory and evolutionary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2, 1380-1393.
- Easton, J. A., Schipper, L. D., & Shackelford, T. K. (2007). Morbid jealousy from an evolutionary psychological perspective. *Evolution and Human*

- Behavior*, 28, 399–402.
- Eysenck, H. J., & Eysenck, S. B. G. (1975). *Manual of the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London: Hodder & Stoughton.
- Eysenck, H. J., & Eysenck, S. B. G. (1991). *Manual of the Eysenck Personality Scale (EPS Adult)*. London: Hodder & Stoughton.
- Francis, L. J. (1991). The dual nature of the EPQ lie scale among college students in Englan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1255–1260.
- Guerrero, L. K. (1998). Attachment-style differences in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romantic jealousy. *Personal Relationships*, 5, 273–291.
- Harris, C. R. (2000). Psychophysiological responses to imagined infidelity: The specific innate modular view of jealousy reconsider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1082–1091.
- Harris, C. R. (2003a). Factors associated with jealousy over real and imagined infidelity: An examination of the social-cognitive and evolutionary psychology perspectiv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7, 319–329.
- Harris, C. R. (2003b). A review of sex differences in sexual jealousy, including self-report data, psychophysiological responses, interpersonal violence, and morbid jealous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72, 102–128.
- Harris, C. R., & Christenfeld, N. (1996). Jealousy and rational responses to infidelity across gender and culture. *Psychological Science*, 7, 378–379.
- Hendrick, C., & Hendrick, S. S. (1986). A theory and method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392–402.
- Jaremko, M. E., & Lindsey, R. (1979). Stress coping abilities of individuals high and low in jealousy. *Psychological Reports*, 44, 547–553.
- Kingham, M., & Gordon, H. (2004). Aspects of morbid jealousy. *Advanced Psychiatry Treatment*, 10, 207–215.
- Lee, J. A. (1973). *The color of love: An exploration of the way of loving*. New York: Don Mills.
- Lee, J. A. (1977). A typology of styles of lov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 173–182.
- Lee, J. A. (1988). Love styles. In R. Sternberg & L. Barnes (Eds.), *The psychology of love*. CT: Yale University Press.
- Levy, M., & Davis, K. E. (1988). Love styles and attachment styles compared: Their relations to each other and to various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439–471.
- Little, A. C., Burt, D. M., & Perrett, D. L. (2006). Assortative mating for perceived personality trai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973–984.
- Mead, M. (1977). Jealousy: Primitive and civilized. In G. Clanton & L. G. Smith (Eds.), *Jealous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Murphy, S. M., Vallacher, R. R., Shackelford, T. K., Bjorklund, D. F., & Yunger, J. L. (2006). Relationship experience as a predictor of romantic jealous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761–769.
- Parker, G., & Barrett, E. (1997). Morbid jealousy as a variant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1, 133–138.
- Pervin, L. A., & John, O. P. (2001).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NY: John Wiley & Sons.
- Power, M., & Dalgleish, T. (1997). *Cognitions and emotions: From order to disorder*. East Sussex, UK: Psychology Press.
- Pratto, F. (1996). Sexual politics: The gender gap in the bedroom, the cupboard, and the cabinet. In D. M. Buss & N. Malamuth (Eds.), *Sex, power, and*

- conflict: Evolutionary and feminist perspectives* (pp. 179–230).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aggarin, B. J., Becker, D. V., Guadangno, R. E., Nicastle, L. D., & Millevoi, A. (2003). Sex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jealousy: The moderating influence of infidelity experience and sexual orientation of the infidelity.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4, 17–23.
- Schmitt, D. P., & Buss, D. M. (2001). Human mate poaching: Tactics and temptations for infiltrating existing mate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894–917.
- Schutzwohl, A., & Koch, S. (2004). Sex differences in jealousy: The recall of cues to sexual and emotional infidelity in personality more and less threatening context conditions.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5, 249–257.
- Shackelford, T. K., Buss, D. M., & Bennett, K. (2002). Cues to infide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70, 1034–1045.
- Sheets, V. L., & Wolfe, M. D. (2001). Sexual jealousy in heterosexuals, lesbians, and gays. *Sex Roles*, 44, 255–276.
- Sternberg, R. J. (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93, 119–135.
- Wade, T. J., & Walsh, H. (2008). Does the big-5 relate to jealousy, or infidelity reactions? *Journal of Social, Evolutionary, and Cultural Psychology*, 2, 133–143.
- Wan, W. W. N., Luk, C. L., & Lai, J. C. L. (2000). Personality correlates of loving styles among Chinese students in Hong Ko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 169–175.
- Widiger T. A. (1992). Categorical versus dimensional classification: Implications from and for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6, 287–300.
- Worobey, J. (2001). Associa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love attitudes in a college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 461–468.

## The Effects of Personality and Loving Styles on Sexual Jealousy in Sex Differences

Jinsun Hahm              Jang-Ha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between-sex differences and psychological variables devoted to within-sex differences by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personality dimensions and loving styles in romantic jealousy based on evolutionary and psycho-social perspective. 189 university students were asked to complete an imagined jealousy scenario and then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correlation and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between sex-differences in jealousy was replicated by men reported greater sexual jealousy than women. Extraversion-introversion and storge were predicted of sexual jealousy for men whereas mania was most predicted for women.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extraversion-introversion on within-sex differences in jealousy was supported, but primarily for men. Relative to men with introversion, men with extraversion reported greater jealousy about partner's sexual infidelity.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individual differences such as personality and loving styles affect sexual jealousy for men and women in different ways.

*Keywords:* sexual jealousy, personality, loving styles, extraversion-introversion

1차원고 접수일 : 2010년 3월 8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0년 8월 18일  
게재 확정일 : 2010년 8월 24일

## 부 록

### 질투 질문지(Jealousy Questionnaire, Buss et al., 1992)

#### 시나리오

당신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 또는 앞으로 갖고 싶은 깊고 열렬한 연인과의 애정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과 깊은 관계를 가져왔던 사람이 당신이외의 다른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문항 1. 무엇이 당신을 더 심적으로 괴롭히거나 속상하게 합니까? (한 곳에 표기해 주십시오)

- (가) 당신의 파트너가 그 사람과 열정적인 성관계를 즐기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
- (나) 당신의 파트너가 그 사람에게 깊은 애정을 느껴가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

문항 2. 무엇이 당신을 더 속상하게 합니까? (한 곳에 표기해 주십시오)

- (가) 당신의 파트너가 그 사람과 새로운 섹스체위를 시도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
- (나)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진 당신의 파트너를 상상하는 것

문항 3. 다음 두 가지 일이 함께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느 쪽을 생각하는 것이 당신을 더 속상하게 합니까? (한 곳에 표기해 주십시오)

- (가) 당신의 파트너가 다른 사람과 열렬한 성관계를 갖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
- (나) 당신의 파트너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기 시작한 것을 상상하는 것

\* 강제선택 측정방식에 의한 원 문항: 문항 1, 문항 2

이중사살 가설 보완을 위해 사용된 문항: 문항 3